

“별난물건박물관 놀러오세요”

전북과학교육원, 특별기획전... 즐거움존 등 5개 분야 130점 전시

전북과학교육원(원장 김영찬)은 전시체험관 1층에 '특별기획전 별난물건박물관'을 마련, 학생들에게 체험과 관람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르는 체험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별난물건박물관은 움직임으로 반응하는 별난 세계존, 소리로 듣는 상상의 즐거움존, 일상에서 찾아낸 반짝 아이디어존, 영동하고 찬란한 빛의 향연존, 과학 속에 숨어있는 재치존 등 5개 분야에 걸쳐 130점이 전시됐다.

관람객들은 아인슈타인의 시선 스틸드림 비스무리한 양말, 연인을 위한 장갑 내손이 스위치, 빙글빙글 용수철 등 상상을 깨는 영동하고 기발한 작품과 재미있고 특이한 별난 물건 속에서 과학 원리를 깨닫고 상상력과 창의성도 키울 수 있다.

전시체험관은 공휴일과 월요일을 제외하고 10시부터 매일 6회씩(각 회당 50분 체험) 운영된다.

체험의 편의를 위해 현장접수로 진행하며, 단체(10명 이상)의 경우 전북과학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예약하면 된다.

이지수 학생(이리부속초 5학년)은 "방학이다 가족과 함께 왔는데 재미있는 물건들이 많고 과학원리도 알 수 있어서 즐거웠다"며 "기회가 되면 친구들과 또 한 번 오고 싶다"고 말했다.

김윤성 학부모(익산)는 "휴가철이어서 언니랑 동생 함께 왔는데 기대 이상이다"며 "직접 만지고 들으면서 체험을 하니 기뻐다"고 말했다.

임미녀 연구사는 "눈으로 보고 소리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머리로 상상하며 코로나19로 장기간 방전된 창의력을 충전시키는 즐거운 시간이다"고 말했다.



전북과학교육원(원장 김영찬)은 전시체험관 1층에 '특별기획전 별난물건박물관'을 마련, 학생들에게 체험과 관람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르는 체험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별난물건박물관은 현재까지 2,562명이 관람했으며, 전시는 오는 11월 17일까지 열린다.

/정은성기자

전북대 교수 저서 5권 '우수학술도서'

황갑연·박휴용·홍성훈·나미수·김무열 교수 영예

전북대학교 5명의 교수가 발간한 책이 2020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다.

올해 선정된 도서는 황갑연 교수(철학과)가 펴낸 '문도론'을 비롯해 박휴용 교수(교육학과) '포스트휴머니즘과 교육의 미래', 홍성훈 교수(경제학과)의 '환경·에너지 경제학', 나미수 교수(신문방송학과)의 '미디어와 젠더(이상 전북대 출판문화원)', 김무열 교수(생명과학부)의 '백두산의 야생화(해진미디어) 등이다.

황갑연 교수의 '문도론'은 공자, 맹자, 순자의 제자백가 시대, 한 대, 위진남북조, 송·명·청 대 그리고 조선 500년 동안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던 동아시아 학술사의 큰 주제였던 '문도론'의 전반을 꿰뚫는 연구서다. 지금까지 학술계에서 중국 고대에서 근세까지 문도관계를 종합적으로 연구한 단행본은 이 책이 처음이다.

박휴용 교수의 '포스트휴머니즘과 교육의 미래'는 포스트휴먼 시대를 맞아 새롭게 등장한 포스트휴먼적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포스트휴먼적 사회에서 지시기가 정보는 어떤 성격을 띠는 것인가, 그리고 학교교육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 것인가의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총 10개 장으로

구성된 책이다. 홍성훈 교수의 '환경·에너지 경제학'은 환경 문제를 다양한 경제적 분석 방법으로 풀어낸 책이다. 특히 환경규제정책이나 환경규제의 영향평가, 기후변화와 국제협력 등 환경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경제적 분석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나미수 교수의 '미디어와 젠더'는 다뤄진 미디어 환경 속 젠더의 모습을 올바르게 보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개념들이 담겨 있다. 성과 젠더의 개념에서부터 페미니즘의 역사를 담은 이론, 뉴스에 나타나는 여성과 남성의 이슈 등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드라마와 광고에서의 여성성과 남성성이 어떻게 재현되는지, 성별화된 미디어 생산의 현상까지 다채로운 시각이 담겨 있다.

김무열 교수의 '백두산의 야생화'는 저자가 10년 동안 직접 백두산과 만주 지역에서 확인하고 정리한 식물들이 정리돼 있다. 114과 440속 507종, 12아종, 82변종, 6품종 등 총 901 분류군이 수록돼 있다. 분단 현실에서 북한에 분포하는 식물들을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정은성기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새일센터, 전문가 컨설팅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전북광역여성새일지원센터(이윤에 센터장)는 전문가 컨설팅을 6월부터 9월까지 센터별 수요에 맞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전문컨설턴트를 초빙, 지역과 유형별로 센터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컨설팅 분야는 취업지원영역으로 취·창업지원실적, 고용안정성 진단과 서비스제공 영역의 직업교육훈련 추진과 사후관리사업 운영, 센터운영 영역의 지역사회와 연계노력 등이다. 컨설팅은 지난 2015년부터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으며, 지난해 전북지역 9

개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여성이 13,407명으로 전국 158개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취업자 177,589명의 7.5%를 차지한다.

이윤에 센터장은 "이번 컨설팅은 단 순히 상호 교류를 통한 우수사례 공유 차원이 아닌 분야별 전문가 초빙으로 차별화된 컨설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업무에 사활을 걸고 있는 도내 여성새일센터에 힘을 불어넣어 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기자

김제교육문화회관 '동네서점 바로대출' 인기

김제교육문화회관은 지역사회와 상생기반을 조성하는 '동네서점 바로대출'을 2년째 운영하고 있다.

'동네서점 바로대출'은 도서관에 소장돼 있지 않은 도서를 지역서점에서 바로 빌려볼 수 있는 서비스로, 회원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지역주민이 책과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통로로서, 신간

도서를 바로 읽고 싶어 하는 이용자 등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이용 방법은 이용자들이 읽고 싶은 책을 가까운 동네서점(삼화서점, 제일서점)에서 대출 후 집에서 책을 읽고 해당 서점으로 반납하는 것이다. 반납된 책은 우리 회관에서 구입하여 소장 도서로 활용하고 있다. /정은성기자

공립 교원 임용시험 사전 예고

전북도교육청은 5월 2021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원 임용시험 실시에 대한 사전예고를 도교육청 홈페이지(www.je.go.kr)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1학년도 유치원교사는 일반 46명, 장애 4명 등 총 50명 선발, 초등교사의 경우 일반 80명, 장애 6명으로 86명을 각각 선발한다. 특수유치원교사는 일반 2명, 장애 1명으로 3명을, 특수초등교사는 일반 6명, 장애 1명으로 7명을 뽑아 총 146명을 선발한다.

이는 전년도 최종 선발인원이었던 221명보다 75명이 감소한 인원으로 각 선발 분야별로 정원증감 요인과 퇴직, 휴·복직 등을 반영한 사항이다. 자세한 사항은 9월 9일 초등교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정은성기자

전주교대, 2학기 '대면·비대면' 혼합수업

유연한 학사운영... 실시간 화상수업·소통·피드백 권장

전주교육대학교(김우영 총장)가 2학기 수업운영 방식을 확정 발표했다.

5일 전주교육대학교에 따르면 교무위원회에 앞서 두차례 총학생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2학기 강의방식을 협의하며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따라 수업은 대면수업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교수와 학생의 협의에 따라 비대면 또는 혼합수업을 가능하도록 했다. 대면수업은 수강인원을 20명 이내로 희망학생을 참여하도록 했으며, 미참여 학생에게는 해당 대면수업을 촬영한 동영상 제공하고, 출석 및 평가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비대면 수업은 실시간 화상강의(Teams, Zoom 등) 또는 동영상 녹화

강의와 양자를 혼합한 강의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비대면 수업의 질 확보를 위해 외부동영상이나 과제민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은 금지했으며, 실시간 화상수업을 권장하고, 수업에 대한 소통 및 피드백을 실시하기로 했다.

혼합수업의 경우에는 주차별 혼합수업(홀수주차 비대면, 짝수주차 대면수업), 기간별 혼합수업(1~6주차 비대면, 7~15주차 대면수업) 등을 선택하도록 했고, 최소 4주간 대면수업을 포함하도록 권장했다.

시험운영은 대면시험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 평가(온라인 시험, 과제물 등)도 가능하게 했고, 성적평가

기준은 1학기과 동일한 기준(안화된 상대평가)을 적용하기로 했다.

교육실습 운영은 현장실습을 원칙으로 했으나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관련 기간의 방침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김우영 총장은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상황에서 학생들의 입장과 안전을 고려하면서, 수업의 양질화를 위해 대면·비대면을 혼합한 학사 운영안을 마련했다"며, "향후 상황 악화 시 비대면 전면전환 등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학사운영에 유연성을 갖겠다"고 말했다. /정은성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